

~2015년 시즌, 세계 25승을 목표하는 TEAM HONMA~

김혜윤 프로, 4년 만에 역전 우승

TEAM HONMA 이번 시즌 16승 달성

주식 회사 혼마골프 (대표이사: 니시타니 코지)와 제품 사용 계약을 맺고 있는 김혜윤 프로가 11월 01일 경남 거제 드비치 골프클럽 (파72· 6482야드)에서 열린 KPGA투어 서울경제·문영퀸즈파크 레이디스 클래식 최종 3라운드에서 8언더파 64타로 코스 레코드를 달성하며, 합계 6언더파 210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2012년 현대 차이나레이디스오픈 우승 이후 3년만에 우승을 차지한 김혜윤은 공동 선두에 한번 이름을 올린 뒤부터 조윤지프로와 17번홀(파3)와 18번홀(파5)까지 팽팽한 대결을 벌였다. 그 이후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골라낸 김혜윤프로가 2타차 선두로 우승을 확정 지었고, 이것으로 우승 상금 1억원을 받아 상금랭킹 10위 이내에 진입했다.



그녀가 마지막 18번홀에서 유틸리티 서드샷이 깃대를 맞았지만, 본인은 너무 잘 맞았고 깃대리 환호가 커서 이글인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버디를 하며,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혼마골프 유틸리티에 대해서 “저는 이번 혼마투어월드 비자드 샤프트감이 너무 좋아서 유틸리티만 3개를 사용하고 아이언은 5개만 사용합니다. 어렵게 롱아이언을 일부러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라며 클럽의 편안함과 아마추어골퍼에게 클럽 구성에서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혼마골프의 클럽 후원을 받고 약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우승이 없어서 미안했는데, 오늘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 많은 서포트 해 주신 혼마골프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혼마골프는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제가 느낀 클럽의 니즈를 끝까지 연구해주셔서 항상 큰 신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우승은 1989년 11월 15일생인 김혜윤 프로 본인이 본인에게 주는 가장 원하던 생일 선물이 아닐까 싶다.

김혜윤 프로의 프로필



【생년월일】 1989년 11월 15일

【신장】 163cm

【사용클럽】

1W: TW727 460 YC55 R 9.5

3W: TW717 TC50 R 15

5W: TW717 TA55 R 18

HYB: TW717 UT750 S 22

TW717 UT750 S 25

TW717 UT750 S 28

IRON: TW727 V NS750 R #6~#10

WEDGE:TW-W NS850 R 52/9

WEDGE:TW-W NS850 R 58/13

코멘트

혼마골프의 클럽 후원을 받고 약 3년이 지났는데,
오늘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 동안 많은 서포트 해 주신 혼마골프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혼마골프는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제가 느낀 클럽의 니즈를 끝까지 연구해주시는 점,
그리고 그만큼 저에게 딱 맞는 클럽을
만들어주시는 점에 대하여
항상 큰 신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관련 문의처>

주식회사 혼마골프 한국지점

마케팅부 사원 박찬미

주소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203호

전화번호 02-2140-1800